

**2024
 고2 문학
 지학사**

고2 문학 지학사 | 4(2)(1) 김현감호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작품의 갈래상 특징과 설화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호랑이 처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한국 고전 소설사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구비 설화와 기록 서사 문학을 가르는 분기점에 놓여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에 해당하며,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변신형 설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설화적 특징을 지니며,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기 소설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드러난 설화적 모습과 초기 소설적 모습을 중심으로 작품의 갈래상 특징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

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

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찻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金現感虎)」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사원 연기 설화에 해당한다.
- ②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 준다.
- ③ 동물 변신 모티프가 드러난다.
- ④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 ⑤ 원시 신앙과 불교의 문학적 접목이 나타난다.

2. ㉠~㉣ 중, 이 설화가 전설임을 보여 주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작품의 이면에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교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절이 세워진 내력을 밝히는 사원 연기 설화로, 전기적 요소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갈등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며 절대자가 해결하는 구조이다.
- ⑤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과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장면은 불교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고 하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

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홍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찢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金現感虎)」

4. ㉠~㉣ 중에서 윗글의 서사 갈래상 특징을 보여주는 증거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공간적 배경이 명시되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으므로 전설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전기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 ③ 민간에서 사용되는 부상 치료 방법의 유래를 서술한 부분이 있다.
- ④ 당대의 인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남녀 관계를 읽을 수 있다.
- ⑤ 현세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내세에서 보상받 고자 하는 창작 의도가 드러난다.

신유형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묻는 문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 작품의 구성과 시점을 묻는 문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 '중단원 도입'에 제시된 전기 소설의 특징 및 전개 양상을 묻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김현의 정성스러운 탐독이에 감동한 호랑이 처녀가 희생을 통해 김현에게 보답을 한다는 설화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인간인 김현과 호랑이인 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이면서, 이면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김현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하며, 서사 갈래로서의 작품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성과 시점 등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탐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A]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 **[B]**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C]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우미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찻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

[D]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金現感虎)」

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랑이 처녀에 의해 다친 이들은 호원사의 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왔다.
- ② 김현과 호랑이 처녀는 전답을 돌며 복을 비는 풍습인 탐돌이를 하며 만나게 되었다.
- ③ '늪은 할미'는 호랑이 처녀와 김현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 ④ 호랑이 처녀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로움을 들어 김현을 설득하고 있다.
- ⑤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호랑이조차도 하늘의 심판만큼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오빠들은 김현을 해칠 것인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② [B]를 통해 알 수 있는 서술 방식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③ [C]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 주는 분석적 제시 방법이 쓰였다.
- ④ [D]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호랑이 처녀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8. 윗글의 호랑이 처녀가 한 행동이 주는 교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살신성인(殺身成仁)적 행동이다.
- ② 김현의 만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행동이다.
- ③ 사이가 나쁜 사람도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오월동주(吳越同舟)적 행동이다.
- ④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궤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행동이다.
- ⑤ 죽을 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올리는 수구초심(首丘初心)적 행동이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처음으로 김현과 처녀의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신라 시대의 사회상이 드러난다.
- ② ㉡: 비현실적인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으로 처녀의 정체 that 드러난다.
- ③ ㉢: 처녀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곳이다.
- ④ ㉣: 사랑을 위한 처녀의 자기희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다.
- ⑤ ㉣: 김현과 처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작품이 전설임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나)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다)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오기 좋지 않겠구나.”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고 하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라)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찢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마)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金現感虎)」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김현이 탐돌이를 하다가 호랑이 처녀를 만나 사랑을 함.
- ② (나): 김현이 호랑이 처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집으로 따라감.
- ③ (다): 호랑이 처녀가 오빠들 대신 자신이 희생하여 김현을 출세시키고자 함.
- ④ (라):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은덕을 갚기로 하였으나 김현이 거절함.
- ⑤ (마): 김현은 절을 세워 호랑이 처녀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은혜에 보답함.

11. (나)의 ㉠에서 처녀가 김현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 오빠의 악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할머니가 김현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 ③ 자신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자신이 재앙을 막아 김현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 ⑤ 가족에게 김현과 정을 통한 사실이 들통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12. (다)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김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기적이고 비정하다.
- ② 주체적이고 진실하다.
- ③ 헌신적이고 성실하다.
- ④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다.
- ⑤ 살신성인적이고 강인하다.

【13~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루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들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탐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 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 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찻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金現感虎)」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관습이 소개되고 있다.
- ② ㉡: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그들의 상이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짐승과 관계를 맺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의식한 진술이다.
- ④ ㉣: 살신성인(殺身成仁)하려는 인물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발화이다.
- ⑤ ㉤: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내력이 진술되어 있다.

14. <보기>는 윗글의 이해를 점검하는 학습지를 한 학생이 쓴 것이다. 정답을 맞힌 개수는?

<보기>

- ㄱ. 세 마리의 범은 처녀의 희생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
- ㄴ. 김현은 처녀가 범인 것을 알고 처녀와의 인연을 부끄러워하였다. (×)
- ㄷ. 원성왕이 벼슬을 주겠다는 약속에 김현은 범을 잡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
- ㄹ. 김현이 몸에 지니고 있던 단도로 처녀의 목을 찌르니 처녀가 범으로 변하였다. (○)
- ㅁ. 늙은 할미는 세 마리의 범이 김현을 해칠까 두려워서 처녀에게 김현을 숨기라고 하였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처녀가 김현의 정성스러운 탐돌이에 감동해서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 구성에서 소설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 ② ㉑: 한 호랑이를 본보기로 벌하겠다는 '하늘'의 외치는 소리에서 악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표현되고 있다.
- ③ ㉒: 자신을 희생하여 김현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처녀의 고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㉓: 자신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처녀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㉔: 호원사의 창건 내력이 담긴 사원 연기 설화로 '호원사'가 증거물이 된다는 점에서 뒷글이 전설임을 알 수 있다.

1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처녀를 죽인 김현은 처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처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 ② 늙은 할미와 세 마리의 범은 동일한 이유로 김현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다.
- ③ 처녀는 희생을 반대하는 늙은 할미에게 다섯 가지 이로움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다.
- ④ 신라 시대에는 매년 2월 중 특정 기간 동안 탐돌이를 하며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 ⑤ 오빠들 대신 희생하기로 한 처녀의 선택에 늙은 할미는 기뻐하며 오빠들을 도망치게 했다.

17. 뒷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랑이 처녀는 김현이 자신을 따라온것을 기뻐한다.
- ② 늙은 할미는 처녀를 따라온 김현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
- ③ 김현은 불심이 깊으며 세속적 성공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 ④ 세 호랑이는 자신들을 대신해 동생이 희생하는 것에 매우 근심한다.
- ⑤ 김현은 인륜의 도리를 지키고자 호랑이 처녀와의 만남을 부정한다.

18. 뒷글을 읽고 난 다음의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랑이 처녀는 단 한 번의 인연도 소중히 여겨 은혜를 갚잖아. 요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 ② 호랑이 처녀는 자신이 죽어서 윤회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해.
- ③ 범에 물린 상처에 장을 바르는 민간요법이 생긴 유래를 알 것 같군.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미약하겠지만 민간요법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셈이야.
- ④ 신라 시대에도 탐을 도는 풍속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의 옛날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
- ⑤ 호랑이의 희생정신을 요즘 현대인들은 배워야 해. 손해 보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어디 사랑이겠어.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19. 뒷글을 읽고 등장인물에 관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연: 호랑이 오빠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 동생이 대신 죽겠다고 하니 기뻐하며 바로 사라졌잖아.
- ② 나연: 그에 비해 김현은 호랑이 처녀를 위해 절을 지어주었으니, 은혜에 잘 보답했어.
- ③ 다연: 호랑이 처녀가 김현에게 베풀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보면 이타적인 성격인 것 같아.
- ④ 아연: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호랑이 처녀가 사람을 해쳤는데, 과연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⑤ 하연: 그래도 호랑이 처녀는 호원사의 간장을 바르고 나팔소리를 들으면 다 상처가 나을 거라고 치료법을 알려주었으니, 이타적이라고 생각해.

20. 각 작품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현감호」는 호원사라는 절에 얽힌 설화이다.
- ② 「금오신화」는 신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신화이다.
- ③ 「구운몽」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가문 소설이다.
- ④ 「이생규장전」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전설이다.
- ⑤ 「옥루몽」은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민담이다.

21.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 전기 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우리 전기 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 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 소설의 주인공은 외로움, 내면성, 소극성의 특질을 가지며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로 탄생되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

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 소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기 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 소설 중 어느 한쪽으로만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 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① 중국의 전기와 우리나라의 전기 소설은 모두 기이한 사건을 다룬다.
- ② 중국의 전기는 서사구조가 유기적이며 결말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③ 우리나라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작가의 분신으로 비극적 종결을 맞는다.
- ④ 전설에서 현실의 문제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기이한 사건으로 전개된다.
- ⑤ 전기 소설에서 인물들은 구체적인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에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윗글은 김현과 본래 호랑이인 여성과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 준다.

① 윗글은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에 해당한다.

③ 윗글에는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동물 변신 모티프가 드러난다.

④ 윗글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호랑이나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의 '소리'와 같은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원시 신앙의 측면이 드러나며, 동시에 김현의 탐돌이에 부처가 감응하여 호랑이 처녀의 희생과 선행을 통해 김현에게 세속적 성공으로 보답했다는 점에서 불교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2. **정답** ⑤

전설은 구전되는 이야기인 설화 중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물을 동반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윗글의 ㉠이 이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모두 설화적 특징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답** ④

윗글에서 '하늘'은 신이하고 환상적인 존재이며, 생명을 즐겨 해치는 호랑이들의 악행을 징계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갈등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으며, 절대자가 해결하는 구조도 아니다.

① 윗글은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동물의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윗글의 호랑이 처녀의 희생과 선행은 김현의 탐돌이가 부처를 감동시킨 것에 대한 대가이고, '하늘'은 생명을 즐겨 해치는 호랑이들의 악행을 징계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이면에는 인과응보와 권선징

악의 교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윗글은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로,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전기적 요소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윗글의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과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장면은 불심을 통해 윤회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불교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정답** ⑤

전설은 구전되는 이야기인 설화 중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물을 동반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윗글의 ㉠, ㉡이 이에 해당한다. 윗글의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설화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윗글의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은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 ㉡은 설화적 특징을 보여 주는 증거물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 ㉣, ㉤'은 모두 설화적 특징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정답** ⑤

윗글은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라는 점에서, 불교적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윗글에는 현세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내세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등장인물의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의 도입부에 드러난 시공간적 배경은 원성왕 때 흥륜사로, 윗글은 실재했던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으며, '호원사'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증거물로 동반함으로써 이야기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윗글을 전설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윗글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호랑이나 하늘의 소리와 같은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윗글의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서 사용되는 '간장'을 활용한 부상 치료 방법의 유래를 서술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윗글의 '탑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적인 윤리 의식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남녀가 정을 통하기도 하였으므로, 윗글을 통해 당대의 인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남녀 관계를 읽을 수 있다.

6. 정답 ①

윗글의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처녀에 의해 다친 이들은 호원사의 간장이 아니라,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윗글의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과 호랑이 처녀는 전답을 돌며 복을 비는 풍습인 탑돌이를 하며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윗글의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엔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에서 알 수 있듯이, '늙은 할미'는 호랑이 처녀와 김현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윗글의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처녀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로움을 들어 김현을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윗글의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호랑이조차도 하늘의 심판만큼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정답 ②

[B]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세 짐승'과 '처녀'의 말과 행동,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윗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A]에서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은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을 뿐, 김현을 해칠 것인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③ [C]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석적 제시가 아니라, 간접적(극적) 제시 방법이 쓰였다.

④ [D]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전개 부분이 아닌,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 처녀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 처녀는 입체적 인물이 아닌, 평면적 인물에 해당한다.

8. 정답 ①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신을 희생한 살신성인(殺身成仁)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방약무인(傍若無人)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이르는 말로, 호랑이 처녀의 행동이 주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호랑이 처녀의 행동이 주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로, 호랑이 처녀의 행동이 주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로, 호랑이 처녀의 행동이 주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⑤

㉠: '호원사'는 윗글이 전설임을 보여 주는 증거물은 맞으나, 결국 김현과 본래 호랑이인 처녀와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현과 처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 '흥륜사'는 탑돌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김현과 처녀의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윗글의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시대의 사회상이 드러나 있다.

② ㉡: '초막'은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비현실적인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으로, 윗글의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막'에서 처녀의 정체가 드러난다.

③ ㉢: 앞부분에 제시된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에서 처녀가 예언한 말대로, 호랑이로 변신한 처녀가 '성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성 안'은 처녀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④ ㉣: 호랑이로 변신한 처녀가 '김현이 찼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졌다는 점에서, '숲속'은 사랑을 위한 처녀의 자기희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공간이다.

10. **정답** ④

(라):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김현이 거절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⑤ 모두 (가), (나), (다),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다.

11. **정답** ③

처녀는 자신이 본래 호랑이이며 잠시 사람으로 변해 김현을 만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①, ②, ④, ⑤ 모두 처녀가 김현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②

호랑이 처녀와의 비정상적 만남을 오히려 천행으로 여기고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세속적 성공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김현'이 주체적이고 진실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①, ③, ④, ⑤ 모두 ㉠을 통해 알 수 있는 김현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③

㉠: 김현은 호랑이 처녀와의 비정상적 만남을 오히려 천행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짐승과 관계를 맺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의식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① ㉠: 윗글의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만남의 배경이 되는 신라 시대의 사회적 관습이 드러나 있다.

② ㉡: 오빠들을 대신해 하늘의 징계를 받으려 하는 호랑이 처녀와,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리는 호랑이 오빠들의 언행을 통해, 호랑이 처녀와 오빠들의 서로 다른 성격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호랑이 처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살신성인(殺身成仁)하려는 호랑이 처녀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발화임을 알 수 있다.

⑤ ㉤: 이 글을 쓴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에는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내력이 진술되어 있다.

14. **정답** ②

ㄴ. 김현은 호랑이 처녀와의 비정상적 만남을 오히려 천행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김현은 처녀가 범인 것을 알고 처녀와의 인연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ㄷ. 윗글의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은 원성왕이 벼슬을 주겠다는 약속에 범을 잡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로움을 들어 자신을 설득하는 호랑이 처녀의 간절한 부탁에 범을 잡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 따라서, 정답을 맞힌 개수는 '2개'이다.

ㄱ. 오빠들을 대신해 하늘의 징계를 받으려 하는 호랑이 처녀를 두고 오빠들은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점에서, 세마리의 범은 처녀의 희생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ㄹ. '이에 김현이 찼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이 몸에 지니고 있던 단도로 처녀의 목을 찢른 것이 아니라, 호랑이 처녀가 스스로 목을 찢른 것이다.

ㅁ. 늙은 할미가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늙은 할미는 세 마리의 범이 김현을 해칠까 두려워서 처녀에게 김현을 숨기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④

㉔: 자신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처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김현과의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자 한 처녀의 희생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① ㉓: 처녀가 김현의 정성스러운 탐돌이에 감동해서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 구성에서, 한 인물이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맺고 사건을 펼쳐 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㉖: 한 호랑이를 본보기로 벌하겠다는 '하늘'의 외치는 소리에서, 악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권선징악'이라는 작품의 이면적 의도를 확

인할 수 있다.

③ ㉗: 자신이 죽음으로써 김현의 은덕을 갚으려는 처녀의 모습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김현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처녀의 고귀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㉙: 윗글은 호원사의 창건 내력이 담긴 사원 연기 설화로, '호원사'가 설화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된다는 점에서 윗글이 전설임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④

윗글의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시대에는 매년 2월 중 특정 기간 동안 탐돌이를 하며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이에 김현이 찼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이 몸에 지니고 있던 단도로 처녀를 죽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 처녀가 스스로 자결한 것이다.

② 늙은 할미는 세 마리 범이 김현에게 나쁜 짓을 할까 두려워서 김현의 방문을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세 마리의 범과 동일한 이유로 김현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윗글에는 늙은 할미가 처녀의 희생을 반대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윗글에는 오빠들 대신 희생하기로 한 처녀의 선택에 늙은 할미가 기뻐하며 오빠들을 도망치게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정답 ③

김현이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탐돌이를 하고, '서천(西川)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였다는 점에서, 김현은 불심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현이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세속적 성공보다 호랑이 처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윗글의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

갔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처녀는 김현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윗글의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하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에서 알 수 있듯이, 늙은 할미는 처녀를 따라온 김현에게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윗글의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세 호랑이는 자신들을 대신해 동생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김현이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김현은 인륜의 도리를 지키고자 호랑이 처녀와의 만남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 정답 ②

호랑이 처녀는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김현과의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호랑이 처녀는 인간인 김현과의 단 한 번의 인연도 소중히 여겨 은혜를 갚는다는 점에서, '요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라고 진술한 독자의 감상은 적절하다.

③ 윗글의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범에 물린 상처에 간장을 바르는 민간요법이 생긴 유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미약하겠지만 민간요법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셈이야.'라고 진술한 독자의 감상은 적절하다.

④ 윗글의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시대에도 탑을 도는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옛날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라고 진술한 독자의 감상은 적절하다.

⑤ 호랑이 처녀는 인간인 김현과의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랑이 처녀의 희생정신에 깨달음을 얻은 독자가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라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다.

19. 정답 ⑤

호랑이 처녀는 '호원사'의 간장이 아니라,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라고 하였다.

① 윗글의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오빠들이 동생이 대신 죽겠다고 하니 기뻐하며 바로 사라진 것으로 보아, 호랑이 오빠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 같다는 학생의 대화는 적절하다.

② 윗글의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위해 '호원사'를 지어준 것으로 보아, 김현은 은혜에 잘 보답했다는 학생의 대화는 적절하다.

③ 윗글의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혜를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보아, 호랑이 처녀는 이타적인 성격인 것 같다는 학생의 대화는 적절하다.

④ 윗글의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처녀가 김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으로 보아, 호랑이 처녀가 '과연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진술한 학생의 대화는 적절하다.

20. 정답 ①

「김현감호」는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이다.

- ② 「금오신화」는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기 소설이다.
- ③ 「구운몽」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환몽 소설이다.
- ④ 「이생규장전」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전기 소설이다.
- ⑤ 「옥루몽」은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몽자류 소설이다.

21. **정답** ②

<보기>의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전기 서사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보기>의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와 '우리의 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전기와 우리나라의 전기 소설은 모두 기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의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작가의 분신으로 비극적 종결을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의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설에서 현실의 문제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기이한 사건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소설에서 인물들은 구체적인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에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형 기출 문제

1. **정답** ⑤

윗글과 <보기>에는 모두 특정 인물이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윗글에서는 김현이 '늙은 할미'의 도움으로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보기>에서는 대국 천자의 시험으로 위기를 맞이한 원 정승이 어린 아들의 도움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 ① 군말과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 구어 담화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윗글이 아니라 <보기>이다.
- ② <보기>의 '그래, 아침을 먹었어. 먹구서 그 이틀 날 갔는디'에서 알 수 있듯이,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보기>는 대국 천자의 시험으로 위기를 맞이한 조선을 정승의 어린 아들이 구해 낸다는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비 설화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정답** ②

ㄴ. 신화는 신적 존재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신성한 위업을 달성하는 이야기로, ㉠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은 '신적인 인물이 주인공인가?'이다.

ㄷ. 알고리즘의 결과로, 윗글은 증거물이 있는 구비 설화라는 점에서 전설, <보기>는 증거물이 없는 구비 설화라는 점에서 민담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자료>에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② 'ㄴ, ㄷ'이다.

ㄱ. ㉡은 서정, 극,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내간체'는 교술 갈래이고, '민속극'은 극 갈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내간체'와 '민속극'은 ㉡에 해당하는 갈래이다. ㉠에 해당하는 갈래는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기록 서사 문학'으로, '기(記)'와 '가사(歌辭)'는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에 해당하는 갈래가 아니다.

ㄹ. '질문 4'를 '흥미 본위의 이야기인가?'로 바꾸면, '예'에 해당하는 결과가 '민담'이고, '아니요'에 해당하는 결과가 '전설'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다른